

###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 금속노조 7만 조합원 파업, 파업 확대 전망 ... 윤석열퇴진 투쟁 본격화



얼마나 철저하게 따돌려질 수 있는지 확인한 밤이었다"며 "이 광장과 이 나라는 우리 것이다. 우리의 것을 지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12월 3일 성명을 통해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며 "19만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4일 노조는 비상중집을 소집해 윤석열퇴진 총파업 지침을 확정하고, 12월 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윤석열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와 '3차 퇴진 총궐기' 전조직 전일정 사수,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을 시 12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기업지부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는 5일 이 날부터 이틀간 주야 각 2시간 파업과 지역별 윤석열퇴진 투쟁 결합 지침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5~6일 2시간씩 확대간부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이에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금속노조가 투쟁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7만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 대오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2월 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인근 동화면 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퇴진 시민대회'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집회 참석 인원은 1만 명에 달한다.

4일 광화문 문화제를 마친 노동자, 시민 대오는 용산을 향해 행진했으나 경찰에 의해 남영역 인근에서 막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매일 집회를 결의하며 "매일 우리는 용산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 원주, 충북, 천안, 서산,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나주, 영암, 화순, 목포, 여수, 순천, 장흥, 구례, 고흥, 창원, 진주, 합천, 거제, 신창, 거창, 말양, 울산,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들이 윤석열퇴진 촛불을 들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오전 8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밤 윤석열정권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사회가

현대모비스, 경주 발레오만도, 세진, 리어코리아, 전북 기광 등 주용 사업장 조합원들이 기계를 멈췄다. 5일 오후 2시 최소 7만이 파업에 가세했고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